

진리란 무엇인가? - 제5편

위로자

Jeff Pippenger

2023-09-11

일곱 우레 가운데 드러난 예언적 역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밝혀 준다. 그 비밀은 그것이 가리키는 역사가 도래할 때까지 감추어져 있었다. 지금은 보혜사, 곧 '진리'의 영께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부른 진리를 드러내시는 때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진리'라는 단어가 단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뜻만은 아니다. 또한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심오한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뛰어난 언어학자의 계시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이해될 때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여는 열쇠가 되며, 그리하여 성경 전체를 여는 놀라운 기적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보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려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리'를 알아보려면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진리'라는 말을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의미에 놀랄 수도 있지만, '진리'는 먹어야 한다. 그것은 내면화되어 한 사람의 경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는 그 말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진리'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에 대한 나의 개인적 탐구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는 히브리어 학자들이었다. 그들 역시 '진리'라는 단어의 놀라운 성격과 성경에서의 용례를 다룬다. 그러나 그들의 '진리'라는 단어에 대한 지적 이해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었다고 믿을 이유는 없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그 예언적 사실은, 열 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에 대해 화이트 자매가 내린 정의와, 또한 신랑을 기다리는 두 부류의 처녀들에 대한 그녀의 묘사와도 일맥상통한다.

상징은 대개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는 그 상징이 놓인 문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그것은 문법 전문가가 내린 단어의 정의나 그 단어가 쓰였던 역사적 시기에 의해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 두 가지 접근법은 재림주의 신학자들이 '진리'를 부인하기 위해 채택해 온 것이다. 상징은 그것이 사용되는 문맥에 의해 규정된다. 예언의 영 안에서,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기름'이라는 단어는 '기름'이 등장하는 본문의 문맥에 따라 적어도 몇 가지 다른 것을 가리킨다. 왜 한 부류의 처녀들은 그 기름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부류는 그렇지 않은가?

세상은 악과 속임과 미혹 가운데, 사망의 깊은 그늘 속에 누워 잠들어 있다—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다. 그들을 깨우기 위해 영혼의 산고를 겪는 이가 누구인가? 어떤 음성이 그들에게 가닿을 수 있는가? 내 마음은 그 신호가 주어질 미래로 향한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그를 맞으러 나가라.' 그러나 어떤 이들은 등불을 보충할 기름을 얻는 일을 지체하였고, 너무 늦게서야 그 기름이 상징하는 품성은 옮겨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것은 품성을 나타내며, 품성은 옮겨줄 수 없다. 누구도 다른 이를 위해 그것을 확보해 줄 수 없다. 각 사람은

죄의 모든 오염에서 정결케 된 품성을 스스로 얻어야 한다. Bible Echo, 1896년 5월 4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머지않아 닥칠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품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없다. 그러나 기름은 또한 하나의 기별이기도 하며, '마지막 때'에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그 기름은 듣고 읽고 지켜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대표되는 최후의 경고 기별이다.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기름부음 받은 자들은 한때 사탄에게 덮는 그룹으로서 주어졌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좌를 둘러싼 거룩한 존재들을 통해 주께서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유지하신다. 금빛 기름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등불을 채우셔서 그것이 깜박거리거나 꺼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상징한다. 만일 이 거룩한 기름이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들을 통해 하늘로부터 부어지지 않는다면, 악한 세력들은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영혼 속에 부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황금 기름을 거절하는 것이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가라'는 부름이 올 때, 거룩한 기름을 받지 못하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하지 않은 자들은 미련한 처녀들처럼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스스로 그 기름을 얻을 능력이 없고, 그들의 생애는 파선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부어질 것이다. 황금 관들을 통해 황금 기름이 우리에게 전해질 것이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빛으로 빛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7년 7월 20일.

그 "기름"은 마지막 메시지이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본문에서 기름을 갖기 원하는 이들은 호렙의 굴에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처럼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 주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보혜사이신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라. 그렇게 하면 천사들과 두 개의 금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될 것이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전통과 관습이 하라고 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메시지를 거부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분의 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두 기름부음 받은 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 우리가 그분의 메시지를 거절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의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때 내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등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니까?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두 금관을 통해 스스로 금기름을 비워 내는 이 두 감람 가지는 무엇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이는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기름부음 받은 자니라. 스가랴 4:11-14.

두 “기름부음 받은 자들,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있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으로 묘사된다.

두 증인에 관하여 예언자는 또 이렇게 말한다.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요한계시록 11:4; 시편 119:105.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상징한다. 위대한 논쟁, 267.

두 증인에 대한 스가라의 증언이든 요한의 증언이든, 그 어느 쪽이든 그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메시지와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진리인 소통의 과정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에게서 천사들에게, 천사들이 선지자에게, 선지자가 교회에 전한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이 과정은 그분이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 드러내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진리이다. 이는 첫째와 셋째 천사의 메시지가 제시될 때의 강조점과도 상응한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윌리엄 밀러에 의해 대표된다. 밀러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할 여러 예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그 운동의 ‘아버지’였으며, 알파와 오메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아들이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그는 ‘Millerite’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운동을 대표했는데, 이는 암석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다. 그는 예언 해석을 위한 성경적 규칙들을 체계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 규칙들은 하나님의 영의 기별을 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는데, 밀러의 세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라오디게아적 상태를 유지할지, 아니면 지혜로운 빌라델비아인이 될지를 선택함에 따라 그 기별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였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아버지로서 그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할 한 운동을 예표하며, 그 운동의 그 기별에 대한 이해는 밀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확립하는 데 사용된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견고히 세우는, 특별한 성경적 예언 해석 규칙들에 의해 인도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로 그의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야고보서 1:16-18.

재림운동의 처음이든 끝이든,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의 기별은 두 증인을 통해 전해진다. 처음, 밀러파 시대에는 두 증인이 구약과 신약이었고, 마지막에는 성경과 예언의 신이다. 이것이 조사심판의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모습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요한이 밧모 섬에 있었던 이유다.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인내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밧모라 불리는 섬에 있었다. 요한계시록 1:9.

밧모섬의 예언적 정황은 요한이 박해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는 성경과 예언의 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드러내는 성령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 백성에 대한 박해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죽음을 축하하는 장면으로도 드러난다. 11장에서 그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이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증언을 한 뒤 죽임을 당했으나, 그 후에 부활하였다.

모든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역사보다 말세에 관해 더 많이 말한다. 그러므로 말세를 말하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만나 끝을 맺는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죽임을 당했다가 그 후에 부활하는 "기별"이 있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11장은 프랑스 혁명의 역사를 보여 주었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말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향한 공격을 묘사한다. 밀러의 기별과 운동으로 예표되었던 그 기별과 운동은 그 공격을 받아 2020년 7월 18일에 죽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따르면 그 공격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 감행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치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라.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며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큰 성의 거리에 놓이리라.
요한계시록 11:8, 9.

화이트 자매는 "무저갱"이 사탄의 권세가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들의 증언을 마치게 될 때[마치고 있을 때].'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예언하도록 되어 있던 기간은 1798년에 끝났다.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그들의 사역의 마무리에 다가갈 즈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상된 권세에 의해 그들을 상대로 전쟁이 벌어질 것이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교회와 국가를 다스리던 권세는 수세기 동안 교황권을 매개로 사탄의 지배를 받아 왔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탄적 권세의 새로운 현시가 드러난다. 대쟁투, 268.

요한계시록에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세 권세가 식별되어 있는데, 첫째로 언급된 것은 9장 2절의 이슬람이고, 둘째는 11장 8절의 프랑스 혁명의 무신론이며, 셋째는 17장 8절의 현대 로마이다. 마지막 때의 '새로운 현현'은 밀러주의 운동이 표상하는 그 운동을 공격할 뿐 아니라 세상도 공격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워크이즘'이라 알려진 거짓 한밤중 외침의 거짓 각성이다. 워크이즘은 '사탄적 권능의 새로운 현현'을 대표하며, 이는 현재의 예수회 적그리스도가 떠받들고, 상인들, 유엔의 정치 지도자들,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 교회들 안의 자유주의 대표자들, 그리고 11장에서 '소돔'으로 표현된 동성애 공동체의 일탈적 생활방식의 모든 변형을 조장하거나 그 조장을 허용하는 RINO 공화당원들과 결탁한 민주당을 통해 촉진된다. 이 세 권세가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끌며, 또한 무신론과 세속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도 나타난다. 프랑스 혁명의 무정부 상태라는 요소까지 더해져, 엘렌 화이트 자매가 '악의 연합'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하는 이 세 권세는 워크이즘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거나 허용한다. 워크이즘은 열 처녀의 각성에 대한 사탄의 위조물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 더 논의할 것이 있지만, 먼저 2020년 7월 18일에 자행된 거리 살인의 여파를 다루어야 한다.

또한, 친애하는 독자여, 내가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정치 세력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적하는 것은 단지 미국, 유엔, 그리고

교황권에 존재하는 예언적 역학일 뿐입니다. 그러한 역학은 1798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서로 나란히 가는 두 뿔을 우리가 직접 다루기 시작할 때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가짜 한밤중 외침을 대표하는 사탄적인 위키즘은 실제 한밤중 외침에 앞서며, 진정한 한밤중 외침의 때가 이르기 전에 거리에서 죽임을 당한 이들은 결국 미련한 처녀 또는 슬기로운 처녀로 나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품성이 멸망의 불에 던져질 단으로 묶이거나 하늘 공간에 거둠 단으로 묶이는 때가 이제 임했다.

화이트 자매는 지체하는 때에 밀러파의 역사 속 어리석은 처녀들이 시험이 되는 실망에 대해 슬기로운 처녀들과 다르게 반응했음을 지적하며, 따라서 지체하는 때에는 이미 그들의 품성이 굳어졌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증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분은 우리에게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입으로 쓰임 받을 때 사악하고 포악한 자들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한 놋 성벽으로 삼아 주신다고 알려준다. 바로 그 예언적 시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역사 속에 배치된 요한복음의 네 장이 가지는 의미이다.

그 기름은 성령이며, 성품이고,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이다. 하나님의 영은 "보혜사"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또 예수께서 그가 창조하신 인성을 자신의 일부로 영원히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신의 신적 존재를 희생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주어지는 성령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곧 진리의 영이니,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으며, 너희 안에 계시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로 없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요한복음 14:15-18.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로 선택하신 성령의 이 희생은 하늘의 삼위 중 다른 두 위격의 희생과 상응한다. 아마도 구속받은 각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시려는 성령의 기꺼운 뜻에서 드러나는 그 희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 특정한 역사 속에서 '보혜사'의 오심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인침을 받는 때가 언제인지를 가리킨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30.

보혜사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역사, 곧 십사만 사천의 역사 속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복음의 요구를 충족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았고 그리하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지만, 그 인침은 단지 이 현재의 역사 속에서 십사만 사천이 인침을 받게 될 때를 가리킬 뿐이다. 에베소서에서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과 대조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교통하심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그리하여 황금 기름을 거부한다. 이 실망의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것은 우리 위에 자신의 인을 치시겠다는 약속이며, 그분의 인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나타내며, 특히 요한이 그 계시를 받은 날이자 이제 세상이 곧 맞닥뜨릴 쟁점인 안식일 계명을 뜻한다.

슬기로운 처녀들의 인침은 일요일 법령의 시험 이전에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품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며, 품성은 위기 속에서 결코 형성되지 않고 단지 드러날 뿐이기 때문이다. 인침은, 다른 의미들 가운데서도, 라오디게아인의 마음에서 빌라델비아인의 마음으로의 변화를 나타낸다. 문제는 그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첫 시험이, 지금까지 우리가 라오디게아인이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라는 점이다. 라오디게아인으로서 우리의 주된 영적 태도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태도는 버려져야 하며, 귀한 것에서 분리되어야 할 천한 것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 인침을 받자마자—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인이나 표가 아니라,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진리 안에 굳게 정착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고 흔들림을 맞을 준비가 되자마자, 그것이 올 것이다. 정녕,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땅 위에 임하여, 우리가 무엇이 다가오는지 알도록 경고하고 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제4권, 116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는 실망의 때에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의 백성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인침을 받는 것은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을 통해서이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굳게 서야 할 "진리"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은혜 기간이 마치기 직전에 봉함이 풀리는 그 "진리"이다. 그 진리는 일곱 우레의 감추어진 역사의 구조이며, 그 감추어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리는 역사가 어떤 것인지 드러낸다. 일곱 우레의 감추어진 역사는, 감추어진 역사로 표상된 그 "진리"의 봉함이 풀리는 바로 그때 성취될 것이다. 그 "진리"의 봉함이 풀리는 일이, 이전에 봉함되어 있던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인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요일 법령 때 일어나는 분노한 열방의 요동에 앞서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 그 요동은 국가적 파멸을 촉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요한계시록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때가 가까웠으므로 더 이상 봉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제 읽고 듣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진리이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가 예수께 여쭙되,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만 자기를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씀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22-26.

봉인이 풀리고 있는 그 기별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보혜사께서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엇이든지'에 관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 이는 엠마오의 제자들과 그 후 열한 제자들에게 성취된 약속이다. 그리스도께서 엠마오 제자들의 눈에서 '가려져 있던' 것을 거두시고, 이어서 열한 제자들의 '이해'를 '여시어' 그들이 성경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셨을 때, 그분은 실망에서 돌아서고 라오디게아적 상태를 회개하여 '진리'를 받아들일, '마지막 날들'에 사는 이들을 위한 약속을 기록하신 것이었다. '마지막 날들'의 '보혜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기억'에 '모든 것'을 '상기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과거의 진리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 못지않게,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장차 올 것들'을 '보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나 내가 떠나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들은 것을 말하며 장차 올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는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요한복음 16:7-14.

이때 보혜사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차 있을 일들'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는 이때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일들은, 그것이 우리의 '기억'에서 나온 것들이든, '장차 올 것들'이든, 혹은 그분이 우리에게 '아직' 말씀하실 많은 '것들'이든, 다가오는 위기에 대비하여 우리를 인쳐 주는 것이다. 이는 그의 진리가 그의 창조적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분은 거룩한 역사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일어날 가장 큰 박해의 시기에 대해 우리가 미리 경고받도록 하시려는 뜻으로, 다가오는 위기 이전에 우리를 인쳐 주신다. 그 박해는 특히 우리가 과거에 했던 말과 행위가 기억되어,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그분을 대적하기 위해 왜곡되었듯이 우리를 거슬러 사용될 것임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스겔과 그리스도가 보여 주신 바와 같이, 그들의 반역에 대한 증언으로 이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종이 그 주인보다 크지 않다.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요,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은 내 이름 때문이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겠지만, 이제는 그들의 죄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보고도 나와 내 아버지를 모두 미워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5:20-26.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제 봉함이 풀리고 있는 "일곱 우레"의 감추어진 역사는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기별이다. 2020년 7월 18일 이후의 여파 속에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 돌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의 본을 보여 준다. 그 돌아감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 우리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분별할 책임이 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그 일을 완수한다면 우리는 인침을 받게 되고 즉시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위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선지자들과 왕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사모하던 그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일을 맡아 수행하고 돌아오는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서 걸을 것이며", 또 "천사들을 매개로 하늘과 땅 사이에 끊임없는 소통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첫 구절에서 밝혀진 소통의 과정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 편에 선 것은 아니다. 모두가 불충해진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소수는 여전히 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한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4:12. 머지않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를 섬기지 않는 자들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머지않아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릴 것이니,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이 남게 될 것이다.

사탄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자이다. 그는 자기 때가 짧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모든 면에서 대항하여 방해하려 한다. 하늘의 영광과 과거 박해의 재현이 뒤섞일 때, 그때 땅에 살아 있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조금도 묘사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행할 것이다. 천사들을 통해 하늘과 땅 사이에는 끊임없는 교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탄은 악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가능하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해 온갖 이적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적을 행하는 데서 안전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는 사탄이 일어날 이적들을 모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단되고 시험된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기 31:12-18에 언급된 표징에서 그들의 힘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살아 있는 말씀, '기록되었느니라'라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 이것만이 그들이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초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들은 그날에 하나님도 소망도 없이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넷째 계명을 중시함으로써 특별히 구별될 것이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표이며, 사람들의 경외와 경배를 받으실 그분의 권리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창조주의 기쁨을 허물고 로마의 제도를 높이려는 노력으로 구별될 것이다. 이 갈등의 결말에 온 그리스도교 세계는 두 큰 부류로 나뉘게 될 것이다.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이다. 비록 교회와 국가는 권세를 합하여 모든 사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3:16. 밧모의 선지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수금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을 보았고, 그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요한계시록 15:2.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려운 시험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전쟁의 영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라들을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환난의 때(나라가 생긴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흔들리지 않고 설 것이다. 사탄과 그의 무리는 그들을 멸할 수 없다. 이는 능력이 뛰어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증언, 9권, 15-17.

이 단락이 Testimonies 9권 11쪽에서 시작하는 장의 결말이라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유익하며, 이는 9-11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목이 오실 신랑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바울이 히브리서에 기록한 구절을 취한 근거인 하박국의 도표들에도 주목할 만하다. 그 장의 서두는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역사를 지목하고, 재림운동의 시작 때 체결된 예언의 언약의 두 도표를 가리키며, 또한 제목이 '마지막 위기'임을 밝히는데, 이는 마지막 한밤중 외침을 식별해 준다. 그 장의 결말은 서두와 완전히 일치하는데, 시작과 끝이 모두 최종 위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제1절-왕의 도래를 위하여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37.

최후의 위기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취되고 있는 시대의 징조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눈앞에 임박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때는 엄숙하고 중대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점차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이 땅에서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재앙과 심판이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 사회의 불안정한 상태, 전쟁의 경보는 불길한 전조입니다. 이것들은 가장 중대한 사건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합니다." 증언, 제9권, 11.

우리가 돌이켜 예레미야가 대표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입"이 되는 높은 소명을 받아들인다면, 머지않아 거룩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추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또한 소망과 용기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그 길도 너희가 알다." 요한복음 14:1-4. 너희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고, 너희를 위해 일해 왔다. 내가 떠난 뒤에도 너희를 위해 여전히 열심히 일할 것이다.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너희에게 드러내기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기도 하신 내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분과 함께 일할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12.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자신이 하신 것보다 더 고상한 노력을 하게 되리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이 더 큰 규모를 갖게 되리라는 뜻이었다. 그분은 단지 기적을 행하는 일만을 가리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아래 일어날 모든 일을 말씀하셨다. '보혜사가 오실 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곧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가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요한복음 15:26, 27.

"이 말씀은 놀랍게 성취되었다. 성령이 강림하신 후, 제자들은 그분과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들이 전한 말씀과 드린 기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감화되었다. 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였고, 그 권능의 영향 아래 수천 명이 회심하였다." 사도들의 행적, 21, 22.